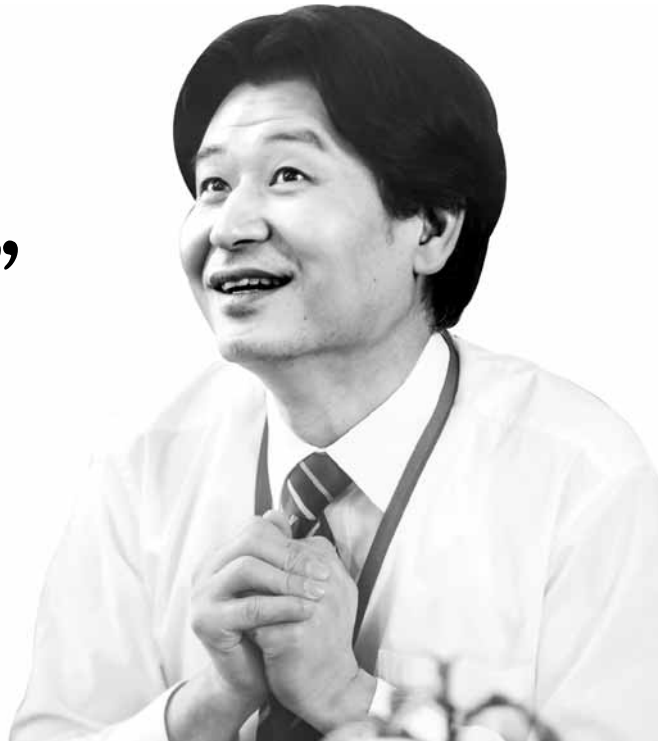


# “진짜 같은 연기를 위해 항상 ‘진짜’를 탐구해요”



박혁권 SBS '초인가족'서 큰 웃음+감동 선사

“나천일은 이웃에 사는 누군가와 같아요”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 보면 출연자들이 한 줄로 서서 앞사람이 말한 단어를 입 모양만 보고 뒷사람에게 전해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거 하다 보면 ‘사자’를 말했는데 끝에 가서 ‘원숭이’가 되고는 하잖아요? 저는 제 연기가 그렇게 될까 봐 늘 걱정이예요. ‘사자’를 그려야 하는데 ‘원숭이’를 그릴까 봐요.”

언뜻 농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진지했다. 슬렁슬렁 가볍게 특 내뱉은 것 같지만 배우로서의 목적인 고민을 진솔하게 토로한 것이었다. 이제 바로 배우 박혁권(46·사진)의 스타일이다.

SBS TV 월요 드라마 ‘초인가족’을 지난 5개월간 끌고 온 그를 만났다. 40부작으로 기획돼,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초인가족’에서 박혁권은 극의 70% 이상을 책임지며 큰 웃음과 따뜻함을 선사했다.

‘초인가족’의 주인공 ‘나천일’은 강촌 출신, 주류 회사의 만난 과장이다. 소심하면서 우유부단하고, 이기적이고 철도 없다. 눈치도 없고, 딸이 다니는 중학교 앞 ‘바바리엔’으로 불리는 등 종종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처한다. 하지만 미워할 수 없다. 박혁권은 그러한 소시민 ‘나천일’을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처럼 생생하게 그려냈다.

“나천일 연기하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현실에 존재할 만한 인물이지요. 달님 삼키고 쓰면 뱀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 진짜 멋진 사람인지, 멋진 척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나천일은 멋진 척을 안 해서 좋아요. 또 ‘척’을 하려고 해도 매번 다 들키죠. 하지만 그런 나천일도 초인이지요. 드라마의 제목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초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초인들이 모여서 이변에 (충돌시위로) 큰 일도 해봤잖아요?(웃음)”

“밀회” 강준형, “편지” 조강재, “프로듀사” 김태호, 육룡이 나르샤‘길태미’는 모두 박혁권의 섬세한 손길이 빛어낸 명 캐릭터다.

“대본이 정말 좋았어요. 진영 작가님이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를 다뤘고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도 건드려줬고요. 연호선 선배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작가님이 다음에 미니시리즈를 쓰면 잘 쓸 것 같아요.”

박혁권은 여러 에피소드 중 ‘취준생’ 동생이 나천일의 집에 잠시 얹혀살며 눈치밥을 먹던 일, 나천일 부부가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일, 나천일의 첫사랑이 쓸쓸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일, 나천일 회사에서 명퇴 신청을 받으면서 벌어질 일 등을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꼽았다.

“사실 좀 더 웃길 수 있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 아쉬운 면도 있어요. 웃음 면에서는 50% 정도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 대신 따뜻한 가족 드라마가 됐으니 만족해야죠. 동생이 눈치밥을 먹던 에피소드가 참 기억에 남는데, 동생 역의 배우랑 씨름 제가 추천했어요. 뜯어보면 자랑 넘치 않았지만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추천했는데 연기가 너무 좋았죠. 아내 역의 박선영 씨, 딸 역의 김지민과도 앙상블이 참 좋았습니다.”

박혁권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싱글이다. ‘초인가족’에서 알콩달콩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으니 결혼 생각이 더 나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주변에서 실제로 가정을 이뤄 아빠가 되고 싶지 않냐고 문드네, 저는 결혼을 더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웃음) 혼자 오래 살다 보니 공간적, 시간적인 면 등에서 결혼을 하면 답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직은 같이 놀아줄 친구

들이 많아서 별로 외로움을 못 느껴요.”

박혁권은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긴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버스도 혼자서 타 보고, 동네에서 목공수업도 듣는다.

“저는 평소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봐요. 대신 사람들을 만나죠. 여차피 연기는 가짜지만, 가짜를 보면서 진짜 흥내를 내느니 진짜를 보고 흥내를 내자 싶은 거죠. 사람들을 만나 술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들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직접 다 해보려고 하고요. 최대한 진짜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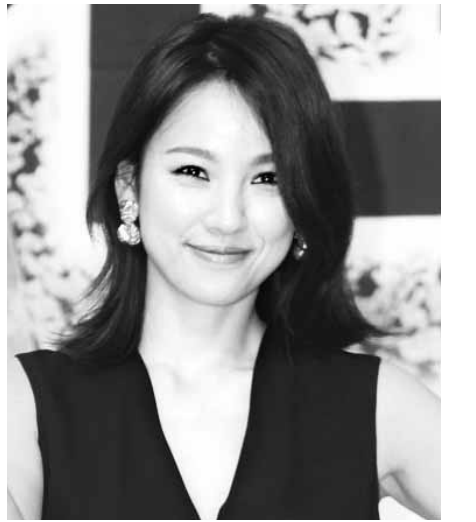
그런 확실한 가치관으로 인해 그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면 관람을 멈춘다 한다.

그런 그가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 최근 3번 본 작품이 있다.

“영화 ‘스포츠타이틀’ 보셨어요? 저는 ‘애네 미쳤구나!’ 하면서 3번 봤어요. 정말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유머도 이상동 감독님 식의 유머가 좋아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웃긴 거 있었어요. 관성적인 거, 관습적인 거는 너무 싫어요. 이런 제가 대놓고 거짓말(연기)을 하게 될까 봐 늘 걱정입니다. 연기의 미각이 둔해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관찰하려고 하죠. 광화문 촛불시위에도 자주 나갔어요. 마스크를 쓰고 나갔더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웃음)”

그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특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017로 시작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아직도 쓰고, 사진 찍기를 ‘너무’ 싫어하며, 조금의 ‘가짜’도 못 참는다. /연합뉴스

## 이효리 컴백 내달 새 앨범



‘댄싱 퀸’인 가수 이효리(38·사진)가 7월 초 4년 만의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소속사 키위미디어그룹은 12일 “당초 6월로 계획했던 앨범을 7월 초에 내기로 했다”며 “앨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어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7월 초에는 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리는 앨범의 프로듀싱을 맡아 작곡가 김도현과 오랜 시간 작업했다. 새 앨범은 2013년 5월 발표한 5집 ‘모로크롬’(MONOCHROME) 이후 4년 만으로 이효리의 자작곡이 다수 수록될 예정이다.

그는 앨범 출시에 앞서 예능을 통해 컴백 분위기를 예열한다. 17일 방송될 MBC TV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25일 첫 방송 되는 JTBC ‘효리네 민박’을 촬영 중이다. 소속사는 “다른 예능 ‘리브콜’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확정 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하리수·미키정, 10년만에 이혼

가수 겸 배우 하리수(42)가 래퍼 미키정(본명 정영진·37)과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다.

하리수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하리수 씨가 지난 3월 중순 미키정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하리수는 남편의 사업실패 등이 이혼 사유로 거론되자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그런 것(사업실패) 때문에 (이혼) 한 것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은 그만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부부 살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내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부였다”며 “아직 SNS 팔로우를 할 만큼 친한 사이이고 서로 응원해주는 좋은 사이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금전적이나 무언가를 바라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에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좋은 사이로 지내는 것이나 더 이상의 나쁜 말들은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온라인 게임을 공통분모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2007년 5월 화촉을 밝혔다. 당시 하리수가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서 성공해 결혼까지 고민하자 큰 화제가 됐다.

2001년 화장품 광고로 데뷔한 그는 가수



미키정 하리수

와 배우로 활동했다. ‘템프테이션’(Temptation), ‘라이어’(Liar) 등의 곡을 냈으며 영화 ‘하리수 도색’,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등에 출연했다. 중국과 홍콩 등 중국어권에 서도 활발히 활동했으며 2011년에는 트랜스젠더 쇼인 ‘판타스틱 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미키정은 하리수의 음반에 랩 피쳐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동MBC 뉴스투데이 50 훈장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UHD 한국의 유산	00 1대 100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뱀비반침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독 보합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법상 (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0 특소는 인터넷 쇼(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25 목?목! 키즈스쿨 55 수빈스토리 2	00 뉴스브리핑
3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자동차부착식 위기 2 30 TV 유치원	25 별별머리(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라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10 생방송 TV블로그 공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뱀비반침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독립영화관 (커튼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 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성난 물고기(재)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유목민의 기사움 몽골 생방송(재)대회>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셋	<엄홍길의 나미스트 네덜 2부 - 빙하의 물빛을 따라서 군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달고미 가지부음과 콩나물냉국>	15:35 모피와 친구들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시계마을 타기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07:00 레이다 비그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두다다구	16:45 똥동영 유치원1~2(재)
07:30 로보카 폴리	12:10 미스타리 휴먼 다크 <대박 청춘	17:15 엄마 깨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출동! 슈퍼맘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8:00 똥동영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크-7요일(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너티너츠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장수의 비밀(재)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레이다비그		
09:15 올감한 소방서 레이	15:00 요술 상자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3일(음 5월 19일 辛未)

<p><b>子</b></p> <p>48년생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주변을 잘 살펴본다면 이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생 전방위적인 확산일로에 놓여 있다. 72년생 인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호기이니라. 84년생 믿는 도가에 발동 찍히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10, 87</p>	<p><b>午</b></p> <p>42년생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후일의 인연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54년생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66년생 수단이나 방법에 흠집이 보인다. 78년생 집중한 만큼에 비례한 성과가 있었다. 90년생 환영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62</p>
<p><b>丑</b></p> <p>49년생 정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이므로 관행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61년생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73년생 압박하였으니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85년생 알면서도 소를 한다면 약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64, 63</p>	<p><b>未</b></p> <p>43년생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55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려해 주는 이가 보인다. 79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91년생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18</p>
<p><b>寅</b></p> <p>50년생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이니 모두 챙겨 두도록 하자. 62년생 입체적인 구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74년생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 보니 할 말을 다 하지 못해서 분통이 터지겠다. 86년생 활기 차게 진행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01</p>	<p><b>申</b></p> <p>44년생 혼란스럽다가 차츰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국면이다. 56년생 마음을 타내고 얘기해 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68년생 동상이몽의 판세이므로 매우 부자연서를 수밖에 없다. 80년생 기다려왔던 기회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4, 40</p>
<p><b>卯</b></p> <p>51년생 분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63년생 뿌린 대로 되돌아 올 것이니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75년생 상대가 변덕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87년생 길사로 연결되는 행운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52, 12</p>	<p><b>酉</b></p> <p>45년생 우여곡절 끝에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57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뜬구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81년생 수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함부로 버리지 마라. 행운의 숫자 : 71, 18</p>
<p><b>辰</b></p> <p>52년생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로다. 64년생 끼어들면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다. 76년생 아무런 이상 없이 온전할 것이다. 88년생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로 끝맺게 될 것이니 절대로 애매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14, 50</p>	<p><b>戌</b></p> <p>46년생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58년생 할 말이 있으면 참지 말고 해야만 한다. 70년생 제대로 갖추고 바르게 인식해야 활용이 가능하다. 82년생 평상시에 찾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70, 34</p>
<p><b>巳</b></p> <p>53년생 참고 베틀다 보면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다. 65년생 얽힌 큰 물은 다시 주위 담을 수 없다. 77년생 어림잡아서 행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었다. 89년생 현대에 국한 시키지 말고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0, 28</p>	<p><b>亥</b></p> <p>47년생 유기적인 연대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59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71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83년생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5, 3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